

# 火災豫防으로 밝은 社會 造成하자

理事長 曹 興 萬



우리는 그 동안 時代的 要請에 副應하여 防災의 必須要諦인 安全性, 迅速性, 正確性을 根本理念으로 하여 火災豫防과 火災 無防備 地帶를 拔本塞源하는데 最善을 傾注해 왔습니다.

또한 福祉社會 建設을 위해 不撤晝夜, 忍耐와 努力으로 精進해 온 事實 또한 그 누구도 否認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人口 팽창과 都市規模의 大型化, 生活環境의 多樣化 등 科學文明이 가져다 준 여러가지 災害要因이 增加一路에 있습니다.

그러나 防火對策은 아직도 後進性을 脫皮하지 못하고 踏襲狀態에 갇혀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實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災難이 그러하듯 불이란 不注意와 放心, 無關心에서 일어나는 確率이 크므로 火災 豫防은 어느 個人이나 特定人의 힘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國民 各自의 精神狀態, 다시 말해서 警火思想 鼓吹의 軟硬과 強弱에 左右된다는 점을 勸案할 때, 日常生活에서 불을 막워하는 思考보다는 불을 사랑한다는 愛着心을 發露하여 다루는데서부터 慎重을 기하여야만 火災를 未然에 防止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銘心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防火의 科學化를 圖謀하기 위하여는 지난날의 技術과 經驗을 土臺로 不斷한 研究와 繼續的인 努力을 기울이며, 正直 勤勉 誠實을 바탕으로 防火對策樹立에 보다 劃期的인 改革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日進月步하는 使命感과 溫故知新하는 思考力으로 火災로부터 貴重한 人命과 값진 財產, 아름다운 文化遺産을 保護하여,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祖國의 未來를 期約하는데 所任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社會속에 내가 있고 國家속에 내가 있다는 人間 本然의 價値觀과 社會觀 道德觀을 되새겨 完璧하고 徹底한 防火對策을 마련하여 自身의 希望과 理想을 追求하는데 寄與하고, 나아가서 國家의 安全과 繁榮과 平和를 構築하는데 이바지한다는 새로운 覺悟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人間의 能力에는 限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새 時代 새 歷史를 創造하려는 國民의 興望과 政府의 意志가 담긴 秩序整然한 「第5共和國」의 出帆과 함께 防火政策은 그 어느 分野보다 時急한 課題로 擡頭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民族의 大行進이 始發되는 分水嶺에서 共同運命體로서의 우리는 모든 災害의 胞嬰要因을 排除하고, 不純要素를 剔抉하는 防災의 先導者로서 名譽와 自信感을 가지고 새로운 精神, 새로운 姿勢, 새로운 決意를 가지고 民族中興의 歷史的 偉業을 성취하고, 福祉國家 建設에 邁進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本誌의 發展을 위하여 끊임없는 協調와 聲援을 보내주신 여러분과 火災豫防을 위한 知識과 技法에 관한 玉稿를 보내주신 關係人에게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